(1) 第77號 (昭和26年12月4日 第三種郵便物認可) (每水曜日發行) 週刊 복음신문 1953年5月13日(水) (定價1部10圓)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2623番
編集兼發行人 吳允台
主筆 田榮澤

國立國會圖書館 63.11.28

福音新聞
THE POK EUM SHIN MUN

聖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라 (엡六장1절)

社說 自由와 方向
―메이데ー데모를 보고―

메이데이는 노동자의 날로 세계의 노동자가 다 같이 지키는 명절이다 노동자는 많은 유린과 학대를 받아왔고 어굴한 생활을 해 왔다 그리고 노동자의 사정은 노동자 자신만이 알기때문에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측수한 심정을 가지고 노동자로서의 남다른 주장과 요구가 있는것이다。그리하여『세계의 노동자는 단결하자』하는 슬로간을 가지고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여 그 주장과 요구를 내놓고 단결과 시위의 힘으로 그 해결과 목적관철의 기회를 삼자는것이라는 하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이도 이 메이데이는 공상당의 운동에 합류되였다기보다도 그 모략에 이용되어 어느 나라에서나 종종 불상사를 일으키는 일이 있거니와 작년 동경의 메이데이 충돌사건은 세인의 기억의 새로운 일이라 일반의 관심도 크거니와 관계당국은 미리부터 크게 신경을 쓰고 전에 없이 비상한 경계를 하게되였다。

들은즉 경시청에서는 당일 二만五천명의 경관을 동원시켰고 심지어 헤리콥타가 뜨고 예비대 이개중대가 출동할뿐아니라 중앙총일 데모의 주최 책임자가 처음부터 단단한 서약을 하고 데모허가를 얻었기때문에 자기네측에서 몇천명 감독 책임자를 빼치하여 일절 탈선행동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일부 극렬분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려는 계획도 있은듯 하였으나 수십만이출동한 데모가 결국 아모 일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시가행렬은 끝났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거슬리고 불쾌한것은 위에도 말한바이어니와 데모에 나오는 노동자와 학생단체가 전부 붉은 기를 들고 붉은 기의 노래를 부르고 혹은 스탈린 화상을 높이 들었고 심지어『스탈린은 아직 우리 마음에 살아있다』는 플란카드들 내세운것이다。그리고 그보다 우리 동포들이 철없는 아이들을 끌고 나와서 인민공화국만세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는 꼴이었다。

일본 사람보다 차림차림이 초라하고 혈색이 좋지못한 동포들이 자유를 남용하는 이땅에서 모방면 어떤 사람들의 꾀임과 선동에 끌려나와서 망동하는 모양은 차라리 불상하고 눈물겨운 감격을 자아내거니와 일본사람들이 심지어『요시다』수상의 화상의 개목아지를 매듯이 매여가지고 끌고 다니는것은

每日禮拜堂五個所新築
第二次大戰後의美國敎界

크리스챤·사이엔쓰·모니타ー紙의 보도에 의하면 아메리카 각지에는 최근에 새로운 예배당건축이 성행되고 있다한다

예배당건축은 각교파에서 거이 경쟁적인 현상을 보이고있는데 캐톨릭과 푸로테스단트와 유대교의 예배당건축은 자금액으로 보아도 막대한것이라한다

캐톨릭은 제二차대전후 매년 一五〇개소 내지二〇〇개소식 준공하고 있으며 미조리ー루터ー파에서는 작년도에 八九개소에서 헌당식을 거행하였고 감리교회는 지난 四年간에 매일 예배당 둘식 건축하였으며 南침례교파에서도 이와 같었다。장로교축에서는 과거五年간에일천六百六十二회당을 새로 세웠는데 六千만딸라를 드리고 또 一千二百만딸라의 건축자금을 모으는 중이라한다。이런것은 신축하는 일부분인데 그외의 크고 적은 교파들의 새로 세우는 회당도 많다한다。

이렇게 예배당을 갑짜기 많이 세우게 된것은 제二차전쟁중에는 물자부족과 불경기로 예배당건축들을 중지하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자 건축자금 모집에 수년을 지내고 一九四八年도에 건축에 착수하게된것이라한다。

새로 세운 예배당중에는 적은것도 있거니와 클리ー부랜드의 파ー크·시나곡 같은 회당은 二百만딸라를 드려세운것도 있다。새로 세운 예배당의 장소로 보면 큰 도시주위 공장지대가 많다는것이 특이하다고 하며 회당 건축양식으로 보면 간소하고 실용적인 건물들인데 부속설비같은 것도 평소에 신도들과 관계있도록 고안되었을뿐만 아니라 증축도 쉽게할수 있게되어 있는데 옛날 성당들 같은 고쉭式과 장식이 적은것도 특징적의하나이라 한다。

美國은反戰論者를注目
韓國戰亂에는倦怠感

아메리카에三年九個月간 유하면서 에드버ー뉴톤과 하ー드포ー드 두 신학에서 공부하고 四十州각지를 도라다니면서 강연도 하였다는 이와무라신지氏는 최근의 미국사정을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 미국학생들은 윤리적이 아니라고 하는사람이 있으나 동양인보다 더 윤리적인 학생을 하ー버ー드에서 보았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는 공명하다기보다 돈과 힘과 언론전에 보수같은것이 있은듯하다。아이젠하워씨의 당선이 결정된 후로의 관측은 군국주의적 경향이 많고 일반은 정치에 무관심한듯한 표정이다

○빨갱이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소위『막카시ー선풍』이라는 것이 심하여 목사의 사상조사를 제안한 사람도 있다。그 제안은 각하되었으나 그제안이유는 반전(反戰)이라고 하면 친쏘주의자로 보기때문에 반전론을 부르짖는 종교단체가 우선 미움을 받고 색안경에 걸리게 되는것이다。미국정부의 쏘련에 대한 공포는 대단하다 심지어 국련헌장을 소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한 일도 있다

○한국전란에 대한 일반국민의 상태는 권태를 느끼는것 같다『세계 어느 한모퉁이에서 서로 눈을 흘기고 있는 사이에 자

主日午前은
和蘭(國會)에서

화란국회 하원에서는 주일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새로운 법안을 통과 시켰다。그내용은『주일이면 오후한시 까지는 시위운동을 금하고 六百페

聖靈받은증거
예수를主로시인

성신강림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을 생각하고 그 책 제二장에 기록된 『오순절날…에 홀연히 하날로부터……홍이 혀같이……각사람우에 임하더니 성신이 충만……』이라는 장면을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성신행전이라고 까지 부르게 되는 사실을 영상하-도 한다。그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후 五十日만에 바로 맥추감사일에 된 일이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한곳에 모였을때에 하늘로부터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래가 있었다。그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때에 맥추절로 각지방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와있던 각국인들은 이 이상한 사실에 놀라 그 곳에 몰여갔다 더욱히 놀라운 일은 무식한 제자들이 각국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실이었다 모였던 사람들은 『이것이 웬일이냐』하며 혹은 술에 취하였다 고도 조롱하였다。그때에 베드로가 이러서서 대 설교를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때가 아직 오전 九시가 아니냐 이 우리가 술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것이다』고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하나님의 살리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올리심에 그가『약속하신 성령(신)을』 아바지께서 받어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나니라(행二33) 주 여기 일는 제자들이 받은것은『確實한 確信』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 말에서 알것은 성신(령)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 하신후에 믿는자에게 약속한대로 부어주신것이라는 사실이다。인간이 죄에서 구속을 받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수 있는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약속하신 성신(령)이 임하실 때라는것이다 바울이 말하대로『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었다(엡一13)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구약에(요엘二28·이사야三二15 四四3…겔三六26·三九29)약속된 성령을 받음으로서 신앙의 확실성을 얻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있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인간적으로는 무식하고 연약한 범인들이었으나『약속된 성령』을 받음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고백을 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적극적인 전도자까지 된것이다。오늘 비기인간들에게도 성신받은 기쁨자가 필요하다 성령받은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든든한 믿음에 날마다 젖어지는것이다 우리는 성신강림절을 맞이하여 주고도 더 주시려는 은은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어 날마다 날마다 한거름 한거름식 주와 더 가까이 살고저 자기를 반성하고 고요히 기다릴것이다。

望臺聲

○우리 희망은 젊은 이들이요 그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우리학생은 옛날에 비하여 그수도 아주 적거니와 그나아 학비의 곤난으로 많이아니다。그러니깐 대께 그학업이 시언치않다。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도아주며 육히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이 절실이 요구되는 형편인데 다행이 이 땅에는 화당구락부와 교려장학회 두 기관이 있어서 많지 않은학생이나마 그 혜택을 밟고 있다 그런데 화당구락부에서는 아담쓰선교사의 힘으로 셋집을 얻어서 학생들의 기숙사를 소규모로 경영하고 있었는데 적지않은 돈을 매달 소모하게 될뿐아니라 남의 집이라 불안성이 있어서 건물을 사가지고 완전한 기숙사를 만들려고 애썼으나 일시에 많은 돈을 아련할수 없어서 걱정만 하고있다가 교회상점 사진 김영연씨가 백칠십여만원을 융통하여 주어서 지금은 도내『무사시노』길상사에 온채집을 매수하여 화당집으로 작정하고 동구락부 회원인 일부가 들어가서 안심하고 공부에 진심하게 된것은 좋지난 소식이지만 매우 고마운 일이다。

○그네들중에도 많은 고생을 하며 성실히 공부하는 여학생들도 있는 모양인데 여학생기숙사도 속히 생겨야 되겠다。뜻있고 힘있는 들의 적극적인 원조가 요망된다。

百五十名軍牧이勇戰
今春에도四十六名配屬

한국기독교는 이번동란을 계기로 육해공군인(陸海空軍人)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군목(軍隊牧師)제도가 실시되어 이미二年간 영전(靈戰)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복음전도전사로 활약하는 군목의 수는 一〇二名이다

또 이번에 군목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장로교측만 하여도 四十六名이라하니 그들의 활약이 크게 기대된다。

또한편 장로교 각교회는 군대목사(軍隊牧師)들을 위하여 군목主日을 정하고 헌금을 하였다는데 총회에 지금까지(三月末) 모인 금액이 三十一萬九千六百四十圓에 달하였다 하는데 총액은 증가될것으로 본다。

聖經通信工夫에熱心
이것은本國이야기

성경통신교육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권호목사의 발표에 의하면 성경통신과는 이번동난때문에 한참동안 정지되었다가 작년六월부터 다시 개시하였는데 각지방 지도자들의 협력도 있어 곤궁한중에도 좋은 성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한다。현재의 상항은 입학자 五百八十명이있는데 구약부가 十二명이며 졸업생은 신약부에서 다섯사람이 났다한다 공부한 편수를 보면 신약부가 一一四四편이 끝났고 구약부가 二四편이 끝났다는데 공부하는 사람중에예는 수용소에 억류된중에서 三千명이나 있다고 한다。

國語普及에功勞多大
京都教會夜間學校

조국해방후인 一九四九年九月二十七日부터 시작된 경도교회야간학교는 지나간 팔년간 재일교포에게 국어역사 예의 풍속등 조국문화 보급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지난二十日밤 제九기생 입학식을 거행하였다는데 동야간학교는 일본정부교육법에 의한각종학교로서 재일교포사회에 유일한 존재이며 특히 일본에서 교육받은 남녀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어를 보급하는 동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목적으로한 전도의 학교이다。

설립당시부터 오날까지 교장으로 수고하는 유석준장로는 야간학교를 통하여 전도된효과가 절대 크다는것과 민족교육에 꼭필요한 기관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 각처교회가 이러한 야학들을 하여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대께 연령은 十一세이상으로 하는것이 효과적이고 정치적색채라든지 신앙을 강요하는 교육은 하지않음이 오히려더전도에 효과적이라고한다。

본주의자는 이득을 보고있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은행街에서는 불경기를 공연하게 두려워하고 있다。그런기때문에 미국에 있어서도 휴전성립을 고의로 느러지게한 것은 미국인지 쏘련인지에 의문을 가진자도 있다고말하였다

靜肅하라
新法案決定

-드 밖에서 까지 울리는 잡음은 금지」한것이다。

새 법률은 一八一五年에 제정된 법률을 대체하는 것인데 이 법률은 주일외에 크리쓰마쓰와 승천일에도 적용된다。신년 정월일에도 적용하려 하였으나 그 제안은 부결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고난받은 금요일과 부활절과 성신강림절다음 月요일과 성탄다음날과 정월一일에도 교회의 예배를 문란케 발하는 것은 금지하고 모든 점방은 폐쇄를 명한다。

이 법률제정은 일주간에 걸처 토론한후 六〇표對二四표로 가결이 되었는데 이것도 주일에는 일절 공적회합과 운동대회같은 회합을 금지하고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자는 갈빈파 국회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과의 이견절충에서 결의 성립된것이다。

순전히 자유를 남용한것이며 어떤 극히 붉은사상에 휩쓸린 탈선행동이라 하는 느낌을 줄뿐이다。

사람이 사람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그 생존권을 힘있게 주장하는것은 좋거니와 그 자유를 남용하여 그 나아가는 방향을 그르친다면 결국은 행복보다 자타의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것이다

일본사람이 과거에 그 명철한 두뇌와 씩씩한 정신과 힘있는 진취성을 가지고 아세아에서 몬저 유신과 개혁을한것은 과연 놀랄만하고 경탄할만 하거니와 일로전쟁 승리의 기세를 타서 그네들은 나아가는 길을 그르친 결과에 패전망국의 쓰라림과 수치를 보았거니와 한나라나 한개인이나 물론하고 자기 재간이나 기운에 맡기어 또 시대와 환경의 자유를 남용하여 한번 방향을 그르치게 되면 다시 회복할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질르게 되는것이다。

만일에 영특한 일본민족이 재가 나아갈 길을 바로 찾지못하고 방향을 그르친다면 것도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어니와 우히 사랑하는 우리동포가 당장 이때에 자유가 있다고 방향을 그르쳐서 함부르 날뛰는것도 심히 아닯은 일이다 부디 좀더 배우고 자중하여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말기를 바라는바이다。

關東地方神學校에 五名入學

崔明山氏는拘置所에서通學

관동지방신학회(關東地方神學生會)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에 관동지방 각 신학교에 입학한 한국인 신학생은 五명이라는데 그들의 성명과 입학된 학교명은 다음과같다。

김양환(金 換)—경북출신으로 금년봄에 명치대학 정경과를 졸업하고 일본성서신학교 본과에 입학하였는데 東京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鄭大立(정대립)—전남출신으로 법학을 공부하다가 금번에 일본성서신학 본과에 드러갔다 현재 東京교회에 출석

김영식(金榮植)와 김군식(金君植)군은 한 형제로 경남에 본적을 두고 경도교회에서 자라났는데 금번에 兄 영식군은 일본성서신학교 예과에 입학하고 아우 군식군은 東京신학대학예과에 드러갔는데 형은 가와사끼교회 아우는 요교하마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최명산(崔明山)씨는 전남출생인데 일본성서학신교 예과에 입학하였다。

이상 다섯사람은 모다 특별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 하였으나 그중에산도 최명씨는 현재 스가모전쟁범죄인구치소(巣鴨戰爭犯罪人拘置所) 복역(服役)중진 몸으로 신앙에 불이 타시 신학교에 입학하게된 사람이다。 씨는 第二차 대전때에 일본군 長으로 남방에 출전하였다 종전후 전범으로 그 책임을 지고 신갈파에서 재판을 받고 복역중에 영국성공회 목사의 인도로 세례를 받고 스가모에 이관되어 지내는 중인데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을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고국 부모형제와 아우동생 네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입끄렀다 한다 이런 사실들에 감동하여 신학교통학에 특별한 허가를 얻고 매일 수업을 받고 있다。

国際基督者캠푸計劃決定

外国人은 七名 豫定

일본기독교협의회에서는 금년 여름에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워—크캠푸는 七月十五日부터 八月十二까지다음 각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발표 하였다

혹가이도—(北海道美唄教會拡充)와 가고시마(鹿兒島南方)염전공사 벳뿌고아원공사등인데 이상 세곳에 각 三十名식 참가하는데 외국인으로서는 미국인五명 비율빈二명이 참가할 예정이라 한다。

그외에 혹가이도(北海道)와 시고꾸(四国) 농촌을 순회할 캬라반은 각각 八명식의 일본청년으로 조직하여 七月十五日부터 二주간 개최된다。

그 밖에 고등학교생도들 캠푸도 七月二十八日부터 八月十一日까지 東京과 北海道에서 개최하리라 한다。

이 캠푸에는 해마다 재일본한국기독학생들이 참가 하고있는데 작년에는 十二名이 참가하였고 한국에서도 六名이 참가하기로 되었으나 수속에 시일이 많이 걸려서 오지못하고 말었던바 금년에도 참가가 기대된다。

• 어머니 "나의게 성경책에있는 이야기를 해주세요!하고 아주 나이 어린 되모데는 유니게한테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어머니 무릅을 꿇어 앉고 성경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때때로 외할머니 로이스 한테도 성경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되모데는 성경에있는 말씀을 들을때마다 참 재미가 있었읍니다。 따윗과 골니앗대장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같은것들도 퍽 재미가 많았읍니다。 되모데는 들은 이야기는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였읍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머니" 그 이야기 또한번 해주세요!하고 졸르기도 하였읍니다。 그리고 되모데는 자기가 듣는 이야기

内村鑑三著作集또出版

文章形式十七卷으로完結

일본기독교인 저서(著書)중에서 가장 많이 팔니고 많이 일켜지는 책이라면 우찌무라(内村한때는 국적이라고 불리우던 일것이다。

작년봄에도 젊은구도자(求道者)들의 독서경향을 조사한바 제일는 内村저서를 읽는다는 회답이 었다 하여 교계를 놀라게하였고 하네다서점에서 内村선집(選集)을 출판케 하였는데 지금도 全集은 일만삼천워이상을 주어야 살수있는 정도다。 이번에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다시 内村鑑三저작집十七권이 나오게되었다。

이 저작집은 전에 전집을 편찬하였던 스즈끼씨가 편집하는 것인데 우찌무라씨의 저서작의 중심적인 부분을 문장형식으로 十七권에 나누고 우찌무라씨의 신앙과 사상과 그인격과 업적을 현대적 새로운 각도에서 나타내려고 한다는것이다。 전집에 있던 영문은 일어로 번역하여 내고 전집발행후에 발견한 자료(資料)도 가첨을 하였는데 새온 선집파같이 크지아니하여 가지고 단니면서 읽기에 편한정도로 四

어머니主日小感

우리는 지난主日을 어머니主日로 지냈다。 교회에서는 어머니主日 설교가 들렸고 주일학교에서는 붉은 카—네—숀을 앞가슴에 부친 아이들이 버쎅 고와졌다。 어떤교회에서는 어머니를 뫼시고 주일학교생과 예배를 한자리에서드리기도 했었다。 교회는 그런 아해들과 그 어머니들이 이야기에 하로일을 치른듯하다。

본래 어머니주일은 세상떠나가신 어머님께 감사하며 그의 생전 사랑과 덕을 명상하는날이었다。 그것이 변하며 붉은카—네—숀을 부칠수 있는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즐겁게 지내는 날이 되어 버리는 경향이 농후하여짐은 난처한 일들의 하나이다。

어머니주일의 유래를 살펴보면 아메리카 東해안에 어느한적한 외—부스터—라는 마을에서 이러난 일이다 그 곳에 쟈—비쓰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는 그곳 주일학교에서 二十六年간 선생일을 본 믿음 깊은 사람이었다。 어느 주일엔가 자기반 학생들에게 십계명중에 제五계명인『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도라보면서 『너희중에서 누구나 어머니의 위대하신 사랑을 마음것 감사할줄 아는 사람이 이러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 반 학생중에는 그 부인(쟈—비쓰)의 딸 안나가 함께 있었는데 안나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감명깊이 들고있었다。 그후 쟈—비쓰부인이 죽었는데 교회에서 추도회를 열었을때 안나는 어머님이 생존시에 주일학교에서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고 추도회에 카—네—숀을 많이 준비하였다가 참석한 사람들이 어머니(쟈—비쓰)를 깊이 추억하도록 꽃을 나누어 주었더니 모혔던 사람들은 크게 감심하고 이같은 모입을 매년 모이기로 하였다。 이 모입이 존·와나메—카—라는 사람(大臣이되고 큰 백화점 경영자면서도 주일학교 교장을 그만두지않었다는 유명한사람)의 제안으로 매년 五月둘째주일에 성대한 기렴식을 거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일은 一九〇八年에 된일인데 그후 이『어머니주일』온 아메리카는 물론이고 유—롭파 아세아와 아푸리카에서도 기렴하게 되었다 아메리카 정부는 一九一四年에 국회에서 이날을 국정일로 결정하고 이날에 국기를 띠우고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결정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어머니주일은 어머니 없는 아

兒童說敎

성경을 읽읍시다

金德成 牧師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는 자기와 친한 동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 해주었읍니다. 동무들도 퍽 재미있게 들었읍니다. 디모데는 점점 커서 어른이되여 글을 배워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혼자서 성경을 읽게되였읍니다. 디모데는 매일같이 하로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읍니다. 어느날 바울선생이 디모데가 사는 동네에 와서 하나님말씀을 전하게 하였읍니다. 그때에 디모데도 자기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결심을 가지고 바울선생을 따라 이동리 저동리 돌아다니며 하나님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젊은 목사가 되였읍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과 바울선생에게 귀여움을 받을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한데도 존경을 받었읍니다. 그리고 여러학생들중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이야기를 들어본일이 있읍니까? 어떤날 신문기자가 여왕을 찾어가서 이와같이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문명한 정치를 하시였는데 그러한 지혜와 힘이 어디서 나왔읍니까하고 물었읍니다. 이때에 빅토리아 여왕은 다 떠러진 가죽성경 한책을 들고 하는말이 이책 한권을 가지고 하였기때문입니다하고 대답하였읍니다. 그뿐아니라 이번三十四대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아이젠하워원수도 자기가 읽고있던 성경책과 미국의 제일첫번 대통령이였던 와싱톤이 읽고있던 두성경책위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들어서 헌법을 지킬것을 서약하였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경말씀을 나이 많은 어른들과 토론하였읍니다. 여러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이야기를 많이듣고 또 배우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三〇페ー지 평균으로 四月부터 매달 한책시 나온다 제일권은 벌써 팔리고 있는데 내용은 그의 생애에 관한 저자자신의 문장으로된 해답이다. (四百圓) 內村씨는 그 자신이『나는 조국을 위하여 있다……』고 말한바와같이 이제그는 이땅에 없것만 그는 저서를통하여 이 땅에없지못할 역활을 하고있다

下關勉靑辯論大會開催

시모노세끼교회에서는 지난二十五日(主日)오후에 면청주최로 변론대회를 개척하였다. 시모노세끼교회는 인근지방 전도에도 분망하게 지나고 있으나 대내적으로 신앙청년들의 지적 향상을 위하여 금번에는 이같은 변론대회를 개최케된것이다.

小野田地方에開拓傳道

下關敎會의熱烈한活動

시모노세끼교회(下關敎會)에서는 지난 三十日에 山陽線小野田市 교포부락에 개척전도를 하였다. 오노다市는 세멘트공업으로 일즉부터 이름난 도시인데 시민十八萬명 중에 七千名의 우리교포가 우거하고있다. 시모노세끼교회가 이곳에 전도하게된것은 수개월 전에 이곳에서 입신(入信)한 허씨(許)의 열렬한 마음에서 부락선도를 열망한데 의한것이라 한다. 시모노세끼교회 전도대는 三十일행 六명으로 조직되어 三十日 오후에 오노다시 혼마찌 어느 유지자 대에서 집회를 열고 개인간증과 특별찬송과 전도강변을 하였는데 참집한 인원수는 三十名이 었다고한다

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것을 이해하여야 할것이고 붉은 카ー네ー숀에 지중하지말고 힌 카ー네ー숀을 부친 아이들의 사정을 살피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그 결과는 어머니께 경의를 표하는 태도에서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것이다.

어머니주일에 다시한가지 더 알어야하는것은 五月둘째주일은 교회력(敎會曆)에 의하면 성신강림주일(聖神降臨主日)과 전후 되는 때다 그럼으로 보혜사 성신의 위로와 권고가 어머니의 사랑과 권고보다 더욱 크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주일학교생들에게 가르처야 할일이다 (續)

『七つの罪』라는映画

善行을要求하는人間

이 영화는 이태리와 불란서 영화사의 공동제작인데 내용은 성경에서 취재되었다고 한다. 그 속에는 탐욕과 분로의죄 태만의죄 음욕의죄 질투의죄 탐식의죄. 교만의죄등에 관한 단편적인것을 장편으로 편성하여 세시간이나 상연하도록 만드렀다.

맨 처음에는(伊)탐욕과 분로에 관한 죄의 문제인데 욕심쟁이 주인과 신경질로 분로잘하는 부인이 실패하고 그와 반대로 빈궁하나 정직한 음악가의생애를 대조한것이고 둘째는(仏)이 세상의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여신(女神)이 태만하여(罪) 실패한 신화를 각색한것인데 센쓰도 있어보이는 희극이다. 셋째는(仏)사춘기전(思春期前)소녀(少女)의 공상이 남자들의 세계를 뒤흔드는 이야기고 넷째는(伊)화가(畫家)의 안해가 질투로고양이를 죽이는 이야기 다섯째는(仏)밥두성만 하는 식통(大食漢)이 어떤 시골숙사에서 치ー즈를 더 먹고싶어 꿀떡거리는 꼴. 여섯째는(仏)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처녀가 초대로 받지않은 무도회에 나갔다가 수치를 받는 이야기를 묘사하였다. 마즈막에는 이 영화 전편에 관한문제를 풀어가는것으로 끝을 맺는데 사두무괴도의 길을 가는 인간을 한 세상에 자기반성도 없이 바로잡어 보려는 휴ー마니스트들의 착상에서 생긴 영화다.

이 영화에서 느낀것은 사명에 태만하였던 女神의罪문제인데 그리스도인이 맡은 사명에 게흘리하는 문제에 연상된다 (N)

(新約講解) 디모데후서 디도서

디모데後書

求道者

一記錄한事情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감옥에서 한번은 석방되어 西쪽은 서바나국을 거치고 동방 각국에도 전도를 하였다가 다시 로마감옥에 투옥되었다. 이때에 그의 제자중에는 그를 버린자도 있었다(一15―四10) 바울은 그런 일에 섭섭함을 금할수없었다. 그는 마조막이 가까옴을 알고(四6―8) 디모데를 보고싶어(四9·20) 하다가 이 편지를 쓴것이다 그 서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하여 여러가지 교훈과 주의를 준것을 보아서 바울이 얼마나 그 제자를 사랑하고있었던가를 알수있는것이다.

二記錄한場所와年代 이 편지를 바울이 죽기 직전에 로마옥중에서 쓴것으로 인정하면 기록한 연대는 六十六七年경이리라고 추측한다.

三本書의槪略 처음과 마조막에 기록한 인사말씀을 제하면 디모데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디모데를 격려한후(一3―14) 전도의 곤난과 쓰라림을 말하고 이에 처할 태도를 가르쳤다(一15―二13) 따라서 거즛 교사의 허된말과 가르침을 삼가라고(二14―26)하고 사혹한 세상에 실망될것 밖에 없으나 믿음과 참음으로 성경을 잡이 믿고 세상을 이기도록 하라(三1―17)고 가르치고 전도이 중요성을 강조한후(四1―6) 인사로 맺친다.

四本書의內容分解

一 인사 一1―2

二 복음전투 一3―二13

1 디모데를 권면 一3―14

2 사제간의 離合 一15―18

3 곤난에대한 태도 二1―13

三 교회곤난과 그대책 二14―四8

1 공론 거즛을 버리라 二14―26

2 사회에관한 주의 三1―7

3 전도를 힘쓰라 四1―8

四 마조막 四9―22

1 인사 부탁 四9―18

2 인사 四19―22

디도서

一디도가 누군가 디도의 출생한곳은 분명치않으나 이방인으로(갈二3)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고 믿어(一4) 그후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에베소와 고린도에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후二13·八23·十二18) 이 편지서에 의하면 디도는 굴레島에 전도하고 그 섬 교회 중심이 되었다.

二本書의目的―바울은 석방되었을때 디도를 대리고 굴레島에 전도를 갔다가 디도를그 곳에 남겨두고 그 섬 전도를 하게하였다. 그후 바울은 그 섬 일들이 염려되어 이 편지를 쓴것이다.

三記錄한場所와年代 이 편지를 쓴곳은 알수없으나 기록한 때는 디모데前書와 後書와의 중간에 쓴듯한데 그때라고하면 기원六十五·六年경이다.

四本書의槪略 중요한 내용은 교회에 장로와 감독을 두고 처리할것(一5―9)을 말한것과 밖에서 이러나는 잡설과 사설(邪說)을 주의하라(一10―15)하고 남녀노소간 노복(종)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가정에 속한자의 취할 태도를 가르치고(二1―15) 따라서 이웃과 국가사회에 대한 일반적 의무를 가르치고(三1―11) 그 원리에 대하여 설명을 한후 사사로운 문제와 인사로 끝마친다.

五內容分解

一 인사말씀 一1―4

二 목회상주의 一5―三11

ㄱ 교회관리문제 一5―16

1 장로와감독을둘것 一5―9

2 거즛된자에 주의 一10―16

ㄴ 신도의가정문제 二1―15

1 가정생활의 요령 二1―10

2 생활의근본원리 三1―15

ㄷ 도덕의원리 三1―11

三 사사로운 일들 三12―15

1 사사로운 일 三12―14

2 인사말씀 三15

說教

그리스도의사랑이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전서五장十四절

朴命俊 牧師

一우리를 강권한다
여기에 『강권한다』는 말은 원어로 『순에카인』인데 『강제하다』『싸고안다』『제어한다』는 동의뜻이 있는것이다『싸고안는다』는것은 대기가 지구를 싸는것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서 동에가나 서에가나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 있게되고 괴로운 때나 즐거운 때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 있게 되는것을 말 함이다 그리스도의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를 가나 어떤 일을 하든지 그사랑의 범위밖에 나갈수 없는것이다。

다음에『강제한다』는것은 우리가 의를 행치아니하려고 하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안할수 없게되고 『제어한다는것은 우리가 불의를 하려고 하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제를 받아서 할수가 없게된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져 나갈려고 하여도 그사랑에 붙들려서 어찌할수가 없게되는것이다。

미국에 한참 흑인 매매를 할적인데 어떤 노예 장사가 많은 흑인을 우마와같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남방으로 팔려 가는길에 아주 힘이 센 흑인이 하나 있어서 노예상인에게 몹시 반항을 하기때문에 그상인이 성이 나서 칼을 더저서 그 흑인을 찌를려고 하는 찰라에 마침 그 옆에있든 어떤목사가 자기손으로 그칼을 막아서 그 흑인을 구했는데 목사의 손에는 상처가 생겨서 피가 흘렀다。 그리고 목사는 노예상인에게 값을 주고 그 흑인을 사가지고 자기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흑인은 성질이 아주 사나와서 일을시킬 때마다 고약스럽게 굴지마는 그럴적마다 목사는 아무말도 아니하고 그손을 내 보였다 그 손에는 자기때문에 상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제아무리 흉악한 이 흑인도 자기 때문에 찔리운 그손을 바라볼 때에는 웃고 순종을 하는것이었다 이 흑인을 제어하는것은 법률보다 몽둥이보다 그목사의 손이 제일이었다。 그것은 곧 목사의 사랑이 그 흑인을 「순에카인」한것이었다。

二주를 위하여 살기위함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十四절에 『우리가 생각건대 한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것이라』한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상하실뿐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죄인이 되여 참혹한 형벌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을 받은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이사야 五三·五)

이렇게 우리대신 죽으신 주를 위하여 우리는 어찌할것인가 十五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함이라 함과 같이 우리는 이미 자기를 위하여 살지않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명예와 자기 형낙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때가 있거니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도 피하지아니하고 달게 받으사 몸을 버리신 주를 생각할때에 우리가 어찌 주예수의 사랑을 버리고 내 육신의 욕심을 좇으리요(갈라디아二·20)

전설에 의지하면 베으로는 네로의 핍박을 피하여 로마성을 탈출해 나갈적에 그 중도에서 예수의 나타나심을 보고 발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였다고 하거니와 이는 예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죽은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사랑에 끌려서 내마음대로 살지아니하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것이다。 사도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하려하나니라』하였다。

三、『새것이 되였다』
十七절에『이전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였도다』한것같이 전에는 사람의 신분이나 재산이나 학식이나 명예로서 사람을 판단하였으나 이제는 그런것을 분토와같이 생각하고 전에는

傳道欄

사죄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것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전제조건이 되는것이다 그리고 죄를 사한다는것은 결코 그렇게 용의하게 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경하게 생각하면 위에서도 말한바있거니와 결국 죄를 경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릇처서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속는 일이 있을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잘못한 줄

教會學校 教師講座 教授法 ─禮拜의方法─ (五)

魯安理

3제목 혹은 동기가 이렇게 하여 결정된 다음에는 재료를 택한다。 성구 음악 그림 찬송가등。 재료는 중심 사상을 설명하며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것이다。

4각자가 맡은 책임은 가급적으로 완전히 준비하며 전부를 예술적인 조화 통일에 모아야 한다。 공파를 읽히고 시를 지정하여 읽어 오라고 하면 그만인것이 결코아니다。 각자가 그것을 자유롭게 명백하게 의미 있게 읽을 수 있게 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실패다。 순서 하나 하나 재료 하나 하나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취급해야 한다。 준비가 필되었을 때에 전부를 한번 예행(豫行)하여 보는것도 좋을 것이다。

5시간적 여유감(時間的餘裕感)이 또한 필요하다。이것은 감상(鑑賞)에 절대로 필요한 요소다。 앞서 감상을 취급한 곳에 돌아 가서 다시 한번 잘 읽기고 바란다。 예배는 참다운 의미에서 감상이요 참가치의 평가요 전체적인 생활경험인것이다。 개인의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비록 한순간이라도 강제적으로 예배에 밀어넣은 일이 없는 자연스러운것을 느끼게 하여야 한다。

6기술적 면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라。될수만 있으면 찬송가 짓수를 알리는 말도 하지않고 조용히 원활이 진행하는것이 좋다。 순서들 등사하여 나눠 주든지 혹은 칠판을 사용하면 이것은 곧 행할수 있는것이다。 만일 각 절차를 말하여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도 예배의 분위기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조심하여야 한다。 피아노 풍금은 미리 여러놓아서 준비해야 한다 칠사람은 자리에 착석하여 기다리고 있도록 한다 안내인은 늦어 온 사람들을 적당한 시간이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게 하여야 한다。 만입 주악이나 헌금 순서가 예배 순서 속에 들어 있을 때에는 어떤 부분도 다 예배 전체의 효과를 주게 계획하여야 한다。 사회자는 일죽이 와서 꽃 기타 설비가 잘 정돈되어있는지 살펴본다。 물론 군대 조련 같은 호령이나 규율을 예배에 행할것은 아니고 말로지시하는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 간단 정숙한 예배가 되어 하여야 한다。 사회는 조곰도 덤비지 않고 침착히 조용히 경건되이 행하여야 한다。

7예배의 환경이 개인의 신앙생활에 격려와 감동을 주는 많은 효파를 가지고 있음은 더 말할것도 없다。 어린이의 예배는 그 가정의 직접

예수를 한 사람으로 알았으나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와함께 하신 신으로도 알게된다 따라서 바울자신도 옛날의 사울이 아니요 그 사상이나 생활이 아주 변한 새사람인 바울이었다 이것은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된것이다 신자가 무슨 착한 일을 했다면 그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것이다。복음에 따르는 선행과 다른 종교의 수양(선행)과 다른 점은 여기에 있는것이다 신자가 전과같이 죄를 지을려고 할때에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를 생각하면 감히 못할것이다 (끝)

구원에대하여

알고 쉬우치기만 하면 고만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업수이 여기게 될것이다。

죄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벌이 시행되고 따라서 죄의 문제가 어떻게서든지 처치가 되어야 비로소 참으로 죄의 해결이 되는것이다。곧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권위는 흔들지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것이다。

이와같이 죄를 바로 처치하고 바로 해결하여 죄가 사함을 받는데 는다음과 같은 계단이 필요한것이다。

첫째로 죄로 인하여 손상된 하나님의 성의(聖義)—거룩하심과 옳으심—이 바로되고 일어나야 할것이다 곧 하나님이 반역을 당했든것이 회복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위엄이 분명이 나타나야 할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권위밑에 죄는 죄대로 처벌이 되어야 할것이다 곧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발동되면 형벌을 받을 길 밖에 없는것이다

세째 사람사이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없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세가지가 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성의』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발동하는 결과에는 죄의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이요 결국 죄의 당연한 형벌인 죽음을 받아야 하는것이다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다。죄의 대상으로는 그 당연한 값으로 죽음을 받아야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것이다。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조 파멸을 당하고 망하는수 밖에 없는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시기를 원치아니하신다。우리를 불상이 여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당할 이를 세우셨다 곧 죄의 값인 죽음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시게 된것이다。죄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질 무거운 죄의 짐을 스스로 지시고 우리가 당연히 받을 죄의 벌인 죽음을 받게되어 마치 그가 대죄인인것처럼 십자가의 사형을 받으신것이다。

예수의 죽음은 다만 육체의 죽음뿐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합한 사람 전체의 죽음이다。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 멸절을 당하는 것이다 다만 육체의 죽음이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아조 암흑가운데 떨어지는 일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웨치신 말씀에『하나님이시어 하나님이시어 어찌 나를 바리시나이까』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 곤난하지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망케하시는 가장 무섭고 가장 쓰라린 경험을 한 인간으로 친히 당하신것이다。

고린도후서 五장二十一절에『하나님이 죄를 아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삼으신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한 말씀은 이것을 가르친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다 자기의 주의나 진리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은 보통 성자나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다 대죄인의 죽음 사형수의 죽음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장한 사람의 숭고한 죽음도 온전히 죄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그리스도의 죽엄과 는 본질적으로 다른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할것을 하지못한 큰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것이다。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온전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것인데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사람이 당할 벌을 온전히 당하셔서 사람이 할일을 감당하시어 하나님에게 절대복종을 하신것이다『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한 빌립보二장八절의 말씀은 곧 이것을 가르친것이다。

이리하여 결국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요 큰 문제에는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것이다。사람의 죄를 그냥 버려둘수도 없고 그렇다 고 죄값으로 사람을 심판하여다 멸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버려둘수도 없고—하는 이런 난처한 문제를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풀 죄없는 예수께서 죄인이 되어서 끝까지 복종하므로써 하나님의 권위가 서고 그『성의』가 만족함을 얻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루어지신것이니 이것이 인류의 구원의 놀라운 길이다。

이러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일에서 이루지는 것이오 이론적으로나 법으로 해결되는것이가 아니다

영향도 아주 큰것이니 밀접한 협조가 절대로 필요하다。이런 의미에 있어서 학부형회 같은 연구회가 있으면 매우 좋다。

8 학생이 이렇게 예배를 개회하고 또 사회한다 하여서 너무 과중한 책임을 메게 하여서는 안된다。그들은 경험이 적으니만치 지도자가 많은 수고를 하여야 할것이다。그리고 그들에게는 예배가 아름다운것임을 힘써 알려 주라。교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온 클라쓰가 감동을 받으면 모범을 볼수 있게 하라。

이상 말할것은 교회학교의 근본 방침에 관련시켜서 교회학교 혹은 부의 예배를 지도하는 문제를 주로 취급한것이니 이것을 그대로 교회 보통 예배에 사용하라는 것이아니다。

香氣

내죄를대신하여

우리나라의 평신도 전도자로 유명한 김예근(金禮根) 선생이 전도하다가 일본 경찰의 손에 잡혀서 해주경찰서 유치장에서 고생하든때의 일이다。

한번은 몹시 치운 겨울밤인데 유치장 어떤 감방에서 소리를 하고 떠드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지키는 순사는 성이 머리 끝까지 올라서 누가 떠들었느냐고 소리쳤다 그때에 바루 그 옆방에 있든 선생은 얼른 손을 들고 제가 그랬읍니다 하고 대답했다。실상은 그 옆방에 있는 부랑자가 그런것을 선생은 대신 나선것이다 가뜩이나 선생을 미워하든 순사는 닥자곳자로 바께츠에 찬물을 퍼가지고 와서 선생의 머리와 온 몸에 들 붓고 구두발로 죽으라하고 함부로 걷어찼다 선생은「네네 잘못했읍니다」하면서 조롱히 그 욕을 다 당했다 그래서 정말 소리하고 떠든 놈은 아모 일도 없었다 그러나 무죄한 선생이 자기때문에 몹쓸 욕을 보고 고생하든것을 보고 마음이 심히 아프고 감격이 되어 그뒤에 울면서 선생께 사죄와 치하를 하였다。

그때에 선생은「예수님은 당신보다 더 많은 내 죄 대신에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쳤으니 그만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요」하고 예수 믿기를 권하니 그 부랑자는 마침내 융복하며 회개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열심으로 성경을 읽었다 한다 나중에 그 악독한 순사도 이 사실을 알고 선생께 사과하고 매우 표양게 하였다

人間의 가치

인간은 어떻게 죽었다던가 얼마나 벌었다던가 어떤 지위에 있었다던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으며 얼마나 도았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본분을 얼마나 감당하였는가가 인간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韓國美

李朝諸宮 (二)

덕수궁은 서울시 중앙지역에 있는데 이조궁궐중에서 말기의 (李太王時) 건물로 알려지고 있다。이태왕이 죽고 二十년을 지나서 시민들을 위하여 개방하고 석조전을 근대 미술관으로 개조함과 동시에 박물관도 수축하여 오란원과 함께 창경원에서 현재의 장소에 옮긴것이다。

이태왕의 생전 궁궐을 그대로 보존하여 일반에게 보이게 될때 상상의외로 그 검소함에는 놀래는 사람들이 있었다。

"德壽宮"

休戰會談의 先決條件

本國新聞論調

民主新聞社說

二十日부터 約六千명의 UN군捕虜와 六百명의 공산군捕虜가 傷病捕虜교환이라는 調印下에 송환되기 시작하게되었고 休戰會談本會議가 續開될 가능성이 濃厚하게되었다。

三十三개월간 한국민의 생명과 문화와 건물을 여지없이 파괴한 世界史上初有의 大비극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를 누리게하기위하여 UN과 공산측이 진숙하게 노력하는것같이 一부 세계인민은 간주하고있다 조속히 東西간의 냉열전을 종결시키고 진정한 세계평화를 갈구하는 자유인민들이 그러한 회망적 관찰을가지고 고의로라도 그러하다고 믿고싶을것을 우리는 양해한다。

우리한국민 역시 진정한 평화와 休전이 단시일내에되어 우리의 고향을 찾아주기를 누구보다도 절망하고있다 우리는 결코 전쟁과 살륙을 즐기는 민족도 아니요 오히려 자유와 예술을 즐기는 선천의 문화민족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休戰을 반대한다。

첫째 타협을 거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공세는 세룹고 더 큰 침략을 음모한뒤에 가장행열의 보중수표가 붙어있다

둘째 流布되고있는 韓國細胞部의 分斷說완충地帶확정說의 근거는 공산침략의 근거지를 제공하는 유화로서 그것은 UN측의 양보와 패북을 의미하는것이며 지금까지의 파괴의 대상으로 한국민에게 공포와 절망을 남겨주는것이다。

셋째 우리가 통일을 갈망하는것은 통일 그자체보다도 통일된 민족으로서 민주진영의 일원이되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함이므로 만약 국토가 분단된채 休戰이 성립된다면 大전쟁의 계기를 조작을 해놓는것으로서 우리한국민은 물론이어니와 세계약소민족들사이에 영미불등의 자유諸强國과 UN의 위신을 실추시키는일이며 나아가서는 신뢰치못하게하는 비통한 일이될것이다。 그반면 중공과 쏘련과 북한괴뢰金日成徒黨의 현상은 어떠한가。

毛沢東은 百萬大軍을 한국전선에 투입하여 五개년계획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케하며 쏠데없이 허덕일 필요없거니와 이미 『스타린』이 죽은 쏘련에게 충성을 다하여 懸案의休戰회망을 지연시킬 필요도없다。 『마렌코프』는 毛沢東이에게 貫錄이 너무작다 더구나 臺灣의中立化解除로말미암아 제할등네 불이 떨어졌다。 그리고 인도지나 버마 馬來등 東南亞의 위弱지역이 오히려 침략가능한 것이다。

스타린死後의 쏘련은 그야말로 독재권쟁탈의 암흑전장으로 화하였다。 모로토프 보로시르프 베리아等의 元老派와 말렌코프一派의 少壯黨員의角逐戰을 줄고 다시 불가닌등의 군人派가 一役을 맡게되었다 유태人醫師석방劇의 幕表面에 그러한 암鬪가 있었음은 능히 추측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면서도 또한 쏘련정부자체로서는 국내의 정리 단속과 위성국의 懷유를 위한 후식의 시간이 필요한것이다。 불과 三百萬밖에 없는 그나마도 완전이 [illegible]된 [illegible]의 원성에 [illegible]구가하는 金日成괴뢰배우들은 인제 [illegible]조차없이 지칠대로 지쳤고 차라리 자신들의 영원한 안식처 『무덤』을 파고싶을것이다。

이런 때에 UN은 침략자로 규정한 공산군과 불명예스럽고 패북을 의미하는 휴전을 회담할 필요가있단말인가 이 이상 더 아까운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으려는 절실한 회망을 우리는안다。 [illegible]을 상실하면 안될 몇몇나라의 절박한 사정도 우리는 잘 안다 중공을 티토化

詩 祖國

대한의 아들 딸들아
네 뼈는 마디 마디
네 살도
네 피도
조국이 주어 받았고
네 가슴에 끓는 넋은
조국의 혼을 이어받은
기나긴 생명의 한줄기란다
×
동천에 해가 뜨면
찬란한 빛을 받아
높고 낮은 봉오리 푸른 봉오리
구비치는 강줄기 맑은 강줄기
빨간 고추 널린 지붕를
푸른 호박 달린 담정새에
모락모락 오르는 검은 연기
옹기종기 늙어있는 마을를
복숭아꽃 살구꽃 피는 마을를
금강산 일만오천봉 솟아있고
명사십리 해당화 붉어있는
산 높고 물 맑은 그 땅에서
수수하고 으젓한 백성이
대문도 활짝 열어놓고
잘 살아온 우리 조국이란다
×
우리 조상이 캐고파고 이룩한
면면 옥토 삼천리 논파밭
겨레가 누리든 행복의 보금자리
향내나는 문화의 꽃
길이 빛나는 예술의 터전은
이제 원수 적마의 독한손에
저 원수 오랑캐의 추한 발에
짓밟혀 거칠대로 거칠어저
터만 남은것을 아ㄴ나 모르ㄴ냐
×
조국의 운명은
네몸의 운명
살아도 죽어도

한글교실 (제4시간)

담당 張曉

(물음) „世界" 를 „세계" 로 적어서는 틀립니까?

(東京 大塚 申 生)

(대답) 틀립니다 „세계" 입니다. 재래에 한문 글자를 우리말로 읽는 음운 (音韻) 이 „계" 이었으며, 또 „계" 로 발음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문 글자에 „게—계" 로 발음하는 글자는 거지반 „계" 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게" 음이 도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揭示) 의 „揭" 따위는 „게" 입니다. 그밖에 몇 글자가 있지마는 우리말로 별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많이 쓰이는 한자어 (漢字語) 인 „시계, 관계, 계명, 계절, 계속, 계약, 계수나무…" 따위는 모두 „계" 입니다. 또 순전한 우리말인 „계집, 계시다, 곕시다" 들도 „계" 입니다.

(물음) „거던, 거든" 과 „던지, 든지" 를 각각 어떻게 구별합니까 ?

(大阪 김 회찬)

(대답) „거던" 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거든" 이 바릅니다.

„던지" 는 지난 일을 다시 회상하여 보고 분명하지 아니함을 (의문을) 나타내는 씨끝 (어미) 입니다. „던~ㄴ지" 와 같이 „더" 를 도움줄기 (보조어간) 로, „ㄴ지" 만을 씨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어서, „있더라, 없더냐, 가더군, 오더니, 놀던" 따위의 „더" 와 같이 지난 일을 회상함과, „붉은지,

„든지" 는 „무엇이든지, 어떠하든지 그 일과 물건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 는 뜻의 토, 또는 씨끝입니다. 이 „든지" 는 „(이) 라도, 거나" 와 비슷한 뜻이므로, „든지" 대신 „이라도, 거나" 를 붙여 보아 뜻이 닿으면 „든지" 가 맞습니다. „어른이든지 (어른이라도) 아이든지 (아이라도) 괜찮다" „자든지 (자거나) 놀든지 (노거나) 가만 둬라" „좋든지 (좋거나) 나쁘든지 (나쁘거나) 말할 것 없다" 이러한 경우에 „든지" 를 씁니다.

또 „던" 과 „든" 이 서로 혼동되기 쉬운데 „던" 은 „하던 (일), 살던 (곳), 아름답던 (조국), 하나이던 (민족)" 에서와 같이 지난 일을 회상하여 다음에 오는 임자씨 (體言) 를 꾸미는 씨끝이며, „든" 은 단순히 „든지" 의 준말입니다. „오든 (오든지) 말든 (말든지), 있든 (있든지) 없든 (없든지) " 에서와 같습니다. 마치 „거나" 의 줆이 „건" 이어서 „오건 (오거나) 말건 (말거나) 내버려둬라" 할 때와 같은 현상입니다.

(물음) „滋味" 는 „자미" 인데, „재미" 라고 쓰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잘못이 아닐까요?

(大阪 김 회찬)

(대답) 잘못이 아닙니다. „재미" 로 적어야 합니다. „味" 가 „재미" 의 원말은 되겠지만 그 원말과는 뜻이 멀어 졌고 „재미" 라고 말하므로 그대로

푸른지，사람인지，개인지，죽는지，사는지，좋을께，나쁠께，될께，말께" 따위의 „으ㄴ지，는지，으ㄹ께" 들과 같은 의문의 뜻을 겸한 씨끝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했던지 생각을 못하겠소" „그가 누구이던지 생각이 안 도오" „얼마나 되던지 기억 못하겠소" 할 때에 „던지" 를 씁니다.

„재미" 라고 말하므로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한자음을 속음(俗音)으로 읽는 것이나，순전한 우리말이 따로 있는 것은 쉽지마는，„재미" 와 같이 원말에서 조금 달라진 것은 구별하기 힘듭니다. „가게 (假家가가)，도둑놈 (盜賊도적)，맹세(盟誓맹서) 재주 (才操재조)，장난(作亂작란) 조카 (足下족하) 따위가 그러한 것입니다.

秋湖堂人

같이할 정지
조국이 상하면
내 뼈가 저리고
나라가 쓰러진다면
네 행복 내생명도 없나니

×

너는 이나라의 기둥이오
서가래요 볕보요 울타리란다
너하나 흔들리고 빠지면
나라가 기울어지고
너하나 든든히 뻗히면
조국이 바루 서리니
부디부디 힘있게 뻗처라
네살도 피도 바치고
네 뼈도 똑合도
조국을 살리는 제물로
고이고이 바치지 않으려느냐

시서기위한 노력도 헛리가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몇해안가 더 많은 희생과 더 큰 손실을 강요당할때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는 이제 博愛정신을 강요코자 하지않는다。 다만 이 時호의 『뒤遲된時機』를 놓지며는 千秋에 한을 남기게된다는것을 강조할뿐이다。 그러므로 UN이 休戰會談을 기어코 성공시키기를 원할진대 그本會議開幕前에 해결해야할 前提条件을 공산군에게 먼저 승인시켜야할것이다。

첫째 자유민주국가로서 한국을 통일시키기위한 구체적 방법과 시일을 결정한후에 休戰条約을 체결할것。

둘째 捕虜收容所內部에까지 침입하여 폭동선동과 虐殺음모를 자행하는 공산흉계를 재인식하고 그 교묘한 수단을 완전이 閉쇄치않는다면 송환불원捕虜의 中立地帶移送이란 공산함정에 빠지는것이므로 그事前조치를 견固하고 공산측이 비합법적으로라도 절대로 송환불원捕虜에게 저축못하도록 약속을 받아야할것。

셋째 休戰調印즉시로 金日成괴뢰군은 해체할것。

小說 새벽종 (十)

田榮澤 作

쭉충전야 (6)

명애는 태호와 둘이 자동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여 달렸다。 차는 종상청 넓은길을 달린다。

『피곤하지요』

태호는 명애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실상은 명애가 이 말을 하려고 하던 것인데 태호가 먼저 해서 기회를 빼앗기니 무어라고 했으면 좋을른지 알수 없어서

『편치않아요』

겨우 한 마디를 하였으나 얼굴이 빨개졌다。 태호는 명애의 빨개진 얼굴이 귀여워서 웃으면서 들여다 보았다。 명애는 그 기회를 타서 말을 했다。

『곤하시지요』

『무얼 편치않아 이제 가서 잘 쉬면 되지요』

『온천이 좋아요 ?』

『좋기도 좋지만 우리들이 가서 지나면 더 좋을게 아니요』

명애는 이런 말을 듣고 자기도 한남자를 더구나 태호같은 안넘자다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속으로 행복을 느꼈다。

명애는 나이 스물다섯이 넘도록 이성을 몰랐다 그러면서도 자기 동무들이 시집가서 아이들 낳고사는것도 보았고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알고 일종 부러움에 가까운 호기심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나 명애는 그 동안 어려서부터 엄한 종교의 분위기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합부르 연애를 하거나 또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너머 장난거리같고 지나친 호강을 하거나 남편에 대해서도 너무 아양을 떠는것은 기뻐이나 뻐우나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쁘게 여겼다 지난 밤에 첫날밤을 정신없이 지내지마는 정말 단 꿈이어디를 간다는 것은 처음이라 명애는 이제 자기가 어떤 미지의 남성과 전에 가보지못한 면길을 떠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앞날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 하며 약간의 만족감 이상의 불안을 느끼지 아니할수 없었서

『차가 빨리두 다라난다』

명애는 속으로 이런 까닭모를 생각을 하면서 중앙청앞 넓은 길에 고급자동차가 분주히 오고 가는 것과 그 속에 가슴을 젖기고 앉아있는 사람들 치마를 길게 끌고 가다가 기다리고 서 있는 부인네들을 꿈결같이 바라보면서 가는 동안에도 태호의 손이 가끔 자기 어깨에 손과 무릎에 서슴지않고와서 따뜻하고 듬직한 맛을 줄 때에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울렁거리면서도 좋았다。

깨성가는 이등차에 태호와 명애는 몸을 싣고 이제 비로소 자기네 새살림이 출발된다는것 처럼 서로 돌아보고 웃었다 명애는 주위를 돌아보고 치마를 바루 가누고 핸드빽에서 거울을 끄내에서 머리와 얼굴을 보고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졌다。

차는 어느새 신촌역을 지나 일산 수색을 지나 달리는데 창박에 보이는 파란 풀들과 여기저기 초가집 새에 빨간 살구꽃이 눈에 띄는것이 색 평화스러운 인상을 주었다。

『해방후에 이차를 타고 온후로는 처음인데요』

오래간만에 차를 타고 좋아하는 기색이 분명히 보이는것솔은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는 태호에게 명애는 이렇게 말하면서 새삼시다운 수집은 태도로 웃었다

『그래?처음이야? 오천은 좋은 처음이겠지』

태호는 가만이 명애의 귀에 대고 하는 말에 명애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좋 않아 있다가 무슨 생각이 [illegible]

『오늘이 토요일이지 그럼 내일이 주일이군 거기도 예배당 있어요』 하고 물었다。

『예배당 ? 있겠지 예배당 없는데 있나 ? 왜 그래요 예배당에는 꼭 가야하는가 마음으로 예배보면 되지않는가 ?』

祝 福音新聞 (舊基督新報) 發展

和盛實業株式會社 東京支店
東京都澁谷區代々木初台町六二八
電話 (37) 一三〇九番

日本活字鑄造株式會社東京營業所
한글 新綴字法活字研究所
辛石然
東京營業所 東京都中央區日本橋濱町二丁目八九
電話 兜町 ㊼ 6323—4番
本社 大阪市北區眞砂町43番地
電話 堀川 ㉟ 2295—6・5127番

福音醫院
內科 外科 小兒科 皮膚科
(日曜及祭日休診)
大阪市東淀川区南方町九〇九
道順 阪急南方驛北半丁